

화재예방과 점검관리



李根熙
〈한양대 교수·경제학박사〉

화재예방의 목표는 화재를 없애려는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究極的인 목표인 동시에, 스로건적인 목표인 것으로서, 이것 만으로서는 실시과제가 명확화 되지않는 것이므로 올바른 대책으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

목표는 계절 등에 맞추어서 일정 기간마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각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자칫 목표를 세분화되어서 때로는 목표의 眞偽가 혼란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중점지향이란 관점에서 관리항목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목표레벨을 마련하는 것에 의해서 효율적인 화재예방의 관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생각한다면 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들의 협조와 협력에 의해서 自主統制型的인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인데, 이 때의 지름 길은 점검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定立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점검”이란 단순히 점검시점에서의 畧判斷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 점검시기까지에는 현재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판단기준 하에서 점검을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구조물의 상태는 물론이고, 인간의 행동인 경우에도 現狀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다. 더구나 계절의 변화라든가 기상조건의 변화시기에 있어서는 현상이 기준에 합치된다고만 해서 화재예방의 점검기능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화재예방의 요점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잠재위험을 제거하지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험이 顯現化하기 이전에 손을 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이 점검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점검”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적절하면서도 과학적인 예측에 基調하는 “사전관리”를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점검”에 불량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버려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불량판정과 더불어, 그 원인을 소급해서 검토하면서 원인구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화재의 원인은 단일돌발적인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복합원인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의 불량원인을 소급해 보지 않는다면 다시금 동일 또는 유사원인의 반복불량 또는 반복화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합격판정인 경우에도 그 결말적인 어떤 사실에



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사실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러한 배려는 점검과정에서 좀체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火災事象의 결실을 분류해 보면 결과는 어느 정도 명백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화재사상에 있어서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인 관계는 엇비슷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결실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화재사상의 과정에 있어서 우연성이나 우발성이 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아주 작은 찬스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결실로 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적인 입장에서의 합격, 불합격 보다는 좀더 원인분석이나 원인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검

제도가 재정비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본래 부터 점검의 의의는 승否를 판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방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검을 成行管理的인 방법론에서 시중할 것이 아니라 점검시점을 개선원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주시되어야 할 것으로는 구조물의 기능과 인간행동특성까지도 배려하면서 現狀의 이전과 이후를 진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점검태도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이라고 하면, 구조물의 상태와 인간행동이 대상으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화재예방 점검에 있어서 인간행태가 대상으로 되는 경우란 대체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화재예방점검에서는 인간행태도 대상으로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점검할 경우에는 인간행태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구조물을 활용하는 人間側의 특성은 배려함이 없이 구조물만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칫 있을 수 있는 過失誘發의 특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점검합격은, 결국은 점검의 의의나 기능을 그만큼 약화시키고 때로는 점검무용론을 제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남기기 쉽다는 것이다.

인간행태는 구조물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인간이 구조물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인간행태를 소외시킨 구조물의 점검만으로 승否를 판정하는 것은 예방관리의 참된 뜻을 벗어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점검은 있을 수 있는 우연적인 결함까지도 적출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에 반드시 인간행태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예방은 강조기간과 같은 인위적인 기간에서만 소납비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인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점검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이보다 우선할 수 있는 어떤 점검도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1985년은 화재예방관리의 토착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해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관리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바람인 것이므로 이를 다시금 과학화해 보는 것은 國利民福의 지름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점검기법의 개발에 의해서 화재예방을 본질적으로 타개해야 할 것이다. ■